

8 기획-에코프렌들리 위크

# 에너지 절감·구성원 재충전 목적 도입 장단점 공존...업무공백 대책 세워야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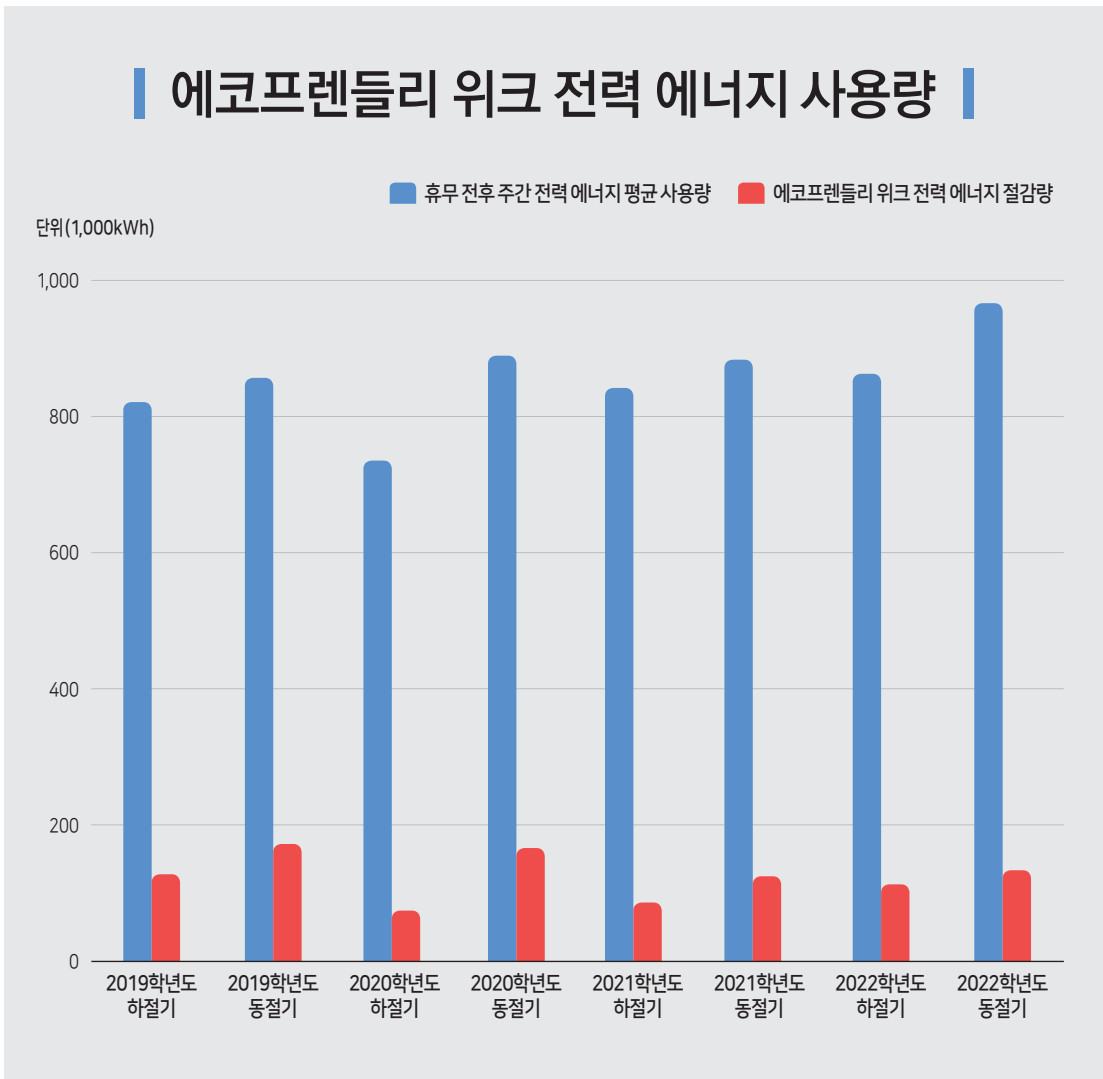
# 매 학기 시행되는 ‘Eco-Friendly Campus Week (에코프렌들리 위크)’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학교 구성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책의 취지에 동참하며 만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는 그 효과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우리신문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에코프렌들리 위크의 취지와 실태, 문제점과 의의를 종합해 짚어봤다.

에너지 소비 절감 목표  
예상치의 56% 달성  
누적 십만 그루의 나무 심어

에코프렌들리 위크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실시하는 우리학교 집중휴무제의 명칭이다. 연 2회 일주일 동안 양 캠퍼스 전 부서가 휴무하며 캠퍼스 내 건물 출입구를 폐쇄한다. 2019학년도 7월에 도입돼 2022학년도 동절기가 끝난 현재까지 총 8번 진행됐다.

에코프렌들리 위크는 에너지 사용을 절감해 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논의됐다. 에너지 소비가 가장 심한 휴서기와 휴한기의 일정 기간 학교 운영을 중지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한다는 목적이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김동준 팀장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을 살리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대학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학교문을 잠시 닫으면 기후 변화를 막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에코프렌들리 위크로 인한 에너지 절감량의 예상치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를 진행했을 때 연간 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하절기부터 2022학년도 동절기까지 총 8번의 에코프렌들리 위크 시행으로 절감된 탄소 배출량을 나무로 환산했을 때, 우리학교는 지난 4년간 총 112,177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휴무 전후 주간 평균에너지 사용량과 에코프렌들리 위크 기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면 ▲2019학년도 하절기 123,503kWh(14,297그루) ▲2019학



에코프렌들리 위크 전력 에너지 사용량

년도 동절기 167,297kWh(19,366그루) ▲2020학년도 하절기 71,787kWh(8,310그루) ▲2020학년도 동절기 163,663kWh(18,946그루) ▲2021학년도 하절기 81,825kWh(9,472그루) ▲2021학년도 동절기 119,144kWh(13,792그루) ▲2022학년도 하절기 110,302kWh(12,768그루) ▲2022학년도 동절기 131,506kWh(15,223그루)만큼 절감됐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더한 연간 절감량의 평균은 약 28,044그루로 계획 당시 예상한 연간 50,000그루를 심는 효과와 비교했을 때 약 56%의 달성률을 보인다.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4년 평균 절감률을 계산하면 약 14.2%다. 에코프렌들리 위크 기간에는 평상시 주간 전력 에너지 사용량보다 약 14.2% 정도를 적게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절감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액수는 4년간 총 107,958,000원이다. 지난 4년간 연간 전력 에너지 사용액의 평균은 5,461,642,000원으로 에코프렌들리 위크 시행으로

인한 전력 에너지 사용액의 절감률을 계산하면 약 1.97%이다.

김 팀장은 “상시 가동해야 하는 연구 시설이나 행정업무를 하지 않아도 소비되는 기본 전력, 상시 근무 인원과 긴급한 일이 있어 출근하는 사람 등을 가정하지 않고 추산해 당초에 예상했던 절감량만큼 산정되지 않는 것 같다”며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감량이 평년에 비해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단점이 존재  
교직원의 복지 증진  
사안의 즉각적 대처에는 취약

에코프렌들리 위크는 교내 구성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매 학기의 에코프렌들리 위크 시행 공지에는 ‘구성원 재충전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학기가 끝나 학생을 상대하는 업무가 줄어드는 방학 시기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휴

무 시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공과대학 행정실 직원 A 씨는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 현재의 집중휴무 시행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 또한 “한 학기 동안 시달린 교내 구성원에게 오프를 줄 수 있다”며 “해당 기간엔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부서나 구성원만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에코프렌들리 위크가 학내 구성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여론 역시 존재한다. 특히 학내 행정의 일괄적인 중지는 예고 없이 발생한 사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큰 피해를 낳는다. 일례로 지난 1월 행복기숙사의 합격자 명단 시정을 들 수 있다.

당시 행복기숙사 측은 소득분위 점수를 잘못 산정한 채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문제를 파악한 후 추가 합격을 진행했지만, 에코프렌들리 위크로 명단 재공지 시기를 일주일 이상 늦춰 문제를 키웠다. 개강 직전 시기 대학이 자취 매물은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숙사 불합격자는 방을 빨리 구해야 한다.

추가 합격자를 공지하기 전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으나 이후 합격 명단에 올라 기숙사에 입사할 시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담은 전부 학생의 몫이다.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했던 일이 에코프렌들리 위크를 거치며 늦어져 문제가 커진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김성윤(철학 2019) 씨는 “행복기숙사 행정실에 연락해도 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큰 실책이 있었음에도 집중 휴무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공지하는 것을 미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기숙사 합격 발표는 보통 금요일이나 집중휴무기간 이전에 진행했다”며 “불합격한 이유나 입사 절차 등의 문의에 즉시 대처할 수 없어 학생들의 피해와 혼란이 가중된다고 생각한다”며 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과 의의는?  
부서별로 탄력적인 진행  
우리학교의 가치관이 담겨

에코프렌들리 위크 중 모든 업무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전체를 공식적인 휴무 기간으로 지정하되 부서별로 업무 처리와 출근에 재량을 둔다. 지난해 7월 의무산학협력단은 에코프렌들리 위크 중 업무 공백 방지에 대한 지침을 공지한 바 있다. 휴무 기간에 처리돼야 하는 업무는 미리 요청할 시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을 약속했으며, 휴무 기간 중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업무별 담당자 이메일을 안내하는 팝업을 띄우도록 했다. 서울 캠퍼스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박동우 사원은 “휴무 기간에도 휴대 전화를 상시로 체크해 긴급하거나 즉시 처리가 가능한 업무에는 바로 대응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에코프렌들리 위크의 시행으로 인해 교수나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며 “에코프렌들리 위크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학교 구성원이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이 커지면 당연히 재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그런 목소리가 크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어 김 팀장은 “대학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때는 득과 실이 공존한다”며 “에코프렌들리 위크는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우리학교의 방향과 부합하는 정책이다”고 평가했다.